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DB 기후 위험 관리 프로그램 승인 -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는 지역 회원국들의 기후 충격에 대한 복원력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기후 위험 관리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재난 금융 프로그램’을 승인 - 지역 회원국에 개방된 이 종합 프로그램은 기후 관련 위험과 비용을 평가하고 재해에 대응하며, 국가 차원 모두에서 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초기 자금 조달도 촉진할 예정 - 해당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purple;">(11/14, UNFCCC)</p>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업가의 역량강화 - 유엔과 국제 무역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네바 적응 위원회 워크숍의 핵심 결말은 공급망 전역의 농식품 업체들은 무역 기회와 혁신적인 적응 기술을 활용하면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임 - 식량안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적응활동의 핵심임. 동전의 양면처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는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기회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신산업과 수입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농업식품부문의 기후회복력을 높이는 것의 핵심 장벽으로 데이터 격차를 강조. 이러한 격차는 혁신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용이 저렴한 글로벌 일기 예보

		<p>보다, 두 배 더 정확한 SMS를 통해 서아프리카 농부들에게 지역 열대성 일기예보를 전달함으로써 정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정보격차의 해소는 농업 계획과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여 수입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p style="text-align: right;">(11/12, UNFCCC)</p>
CTCN	본부	<p>○ PFAN 제안 요구 : 아시아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금융 자문 네트워크(PFAN)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요구함.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무료로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투자가 준비되면 PFAN의 투자 촉진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됨 - 청정에너지 또는 기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나 최대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음 <p style="text-align: right;">(11/9, CTGN)</p>
		<p>○ 감비아(Gambia)역량 강화 : 폐기물 및 유기물 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GN은 에너지 및 생활 유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함. 이 지원의 일환으로 센터는 여성 단체들의 폐기물과 농업 잔여물로 연탄을 생산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원조의 목표는 국가수준으로 확장 가능한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가치와 공급망(Supply chain) 개발임 <p style="text-align: right;">(11/5, CTGN)</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G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 기후변화 프로젝트 재정지원을 위한 교육 공동조직 - GGGI가 마련한 이 훈련은, 기후금융에 접근하고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기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자들은 기존의 자금 지원 창과 이용 가능한 기술 지원, 그리고 우수한 기후프로젝트의 사례를 공유함 -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방식의 수립부터 투자 유치, 민간 부문의 참여 권고 등을 탐색함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purple;">(11/9, GGGI)</p>

3. 기후기술 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국제기구 정회원 가입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연차 총회'에 참석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 정회원으로 가입함. 현재까지 가입한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리랑카 3개국임. 환경과학원은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에 2014년 가입했고 이번에 상위 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

	<p>- 이번 IAF 정회원 가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배출량을 검증할 때 검증기관으로서 적합성과 신뢰성을 인정 받을 전망이며 2021년까지 온실가스 검증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의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체결을 추진해 국제탄소시장 연계와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에 대응할 계획임</p> <p style="text-align: right;">(10/30, 에너지경제)</p> <p>○ 기후변화센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p> <p>- 기후변화센터가 가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나 에너지부 및 동서발전과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CDM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함</p> <p>- 가나 고효율 쿡스토브(Cook Stove) 보급 사업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 개선, 여성의 교육 기회 제공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급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함</p> <p>- 이는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탄소배출권 외 국내상쇄배출권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임</p> <p style="text-align: right;">(11/1, 에너지데일리)</p> <p>○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7개국과 농업개발협력 추진</p> <p>-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2회 아시아 7개국 공적개발원조(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과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p> <p>- 국가별 세션에서 라오스는 관개기술훈련센터 설립과 가치사슬 및 수확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협동조합 모델 개발 사업 2가지를 제안하였고 몽골에서는</p>
--	---

		<p>식량작물 생산성 제고, 농식품 안전, 수출지향적 축산업 발전, 가축질병 관리를 중점분야로 제시함. 미얀마는 식물위생(SPS)분야 지원사업과 기후스마트농업을 통한 농촌 생활 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고, 베트남은 무병 씨감자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사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를 위한 농업분야 이해관계자의 창조적 연계강화사업의 협력을 제안함. 인도네시아는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원예 품목 수출을 위한 기술 촉진, 농기계분야 투자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캄보디아는 산악 지역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가축 및 버팔로 백신연구개발, 쌀 산업 통합시스템 구축, 쌀 산업강화를 위한 건조 및 저장 섹터 설립을 우선순위로 발표.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고무 가공공장 설립과 돼지도체 등급 기준 설립사업을 제안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소규모 관개시설 구축, 영농 기계화, 농민 조직화 및 클러스터 구축, 농업금융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함</p> <p style="text-align: right;">(11/9, 농축유통신문)</p>
--	--	---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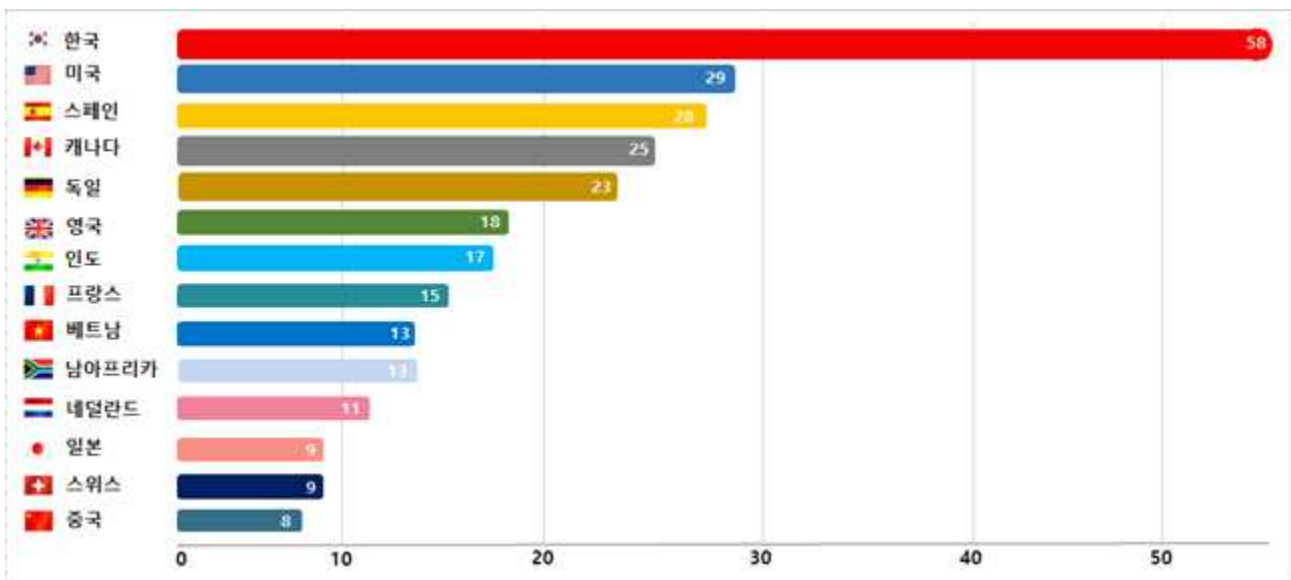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 197개 당사국 중 184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8.11.1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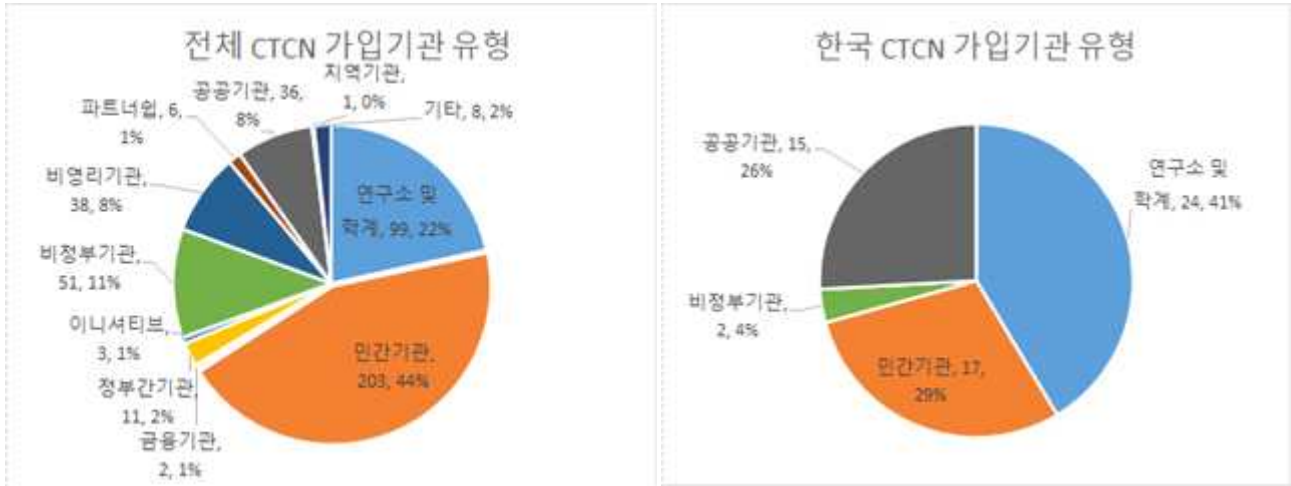
- 총 458개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8.11.14. 현재)



<CTCN 전체 458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58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458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203건으로 4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9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51건(11%), 38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58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4건(41%)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7건(29%)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8.11.1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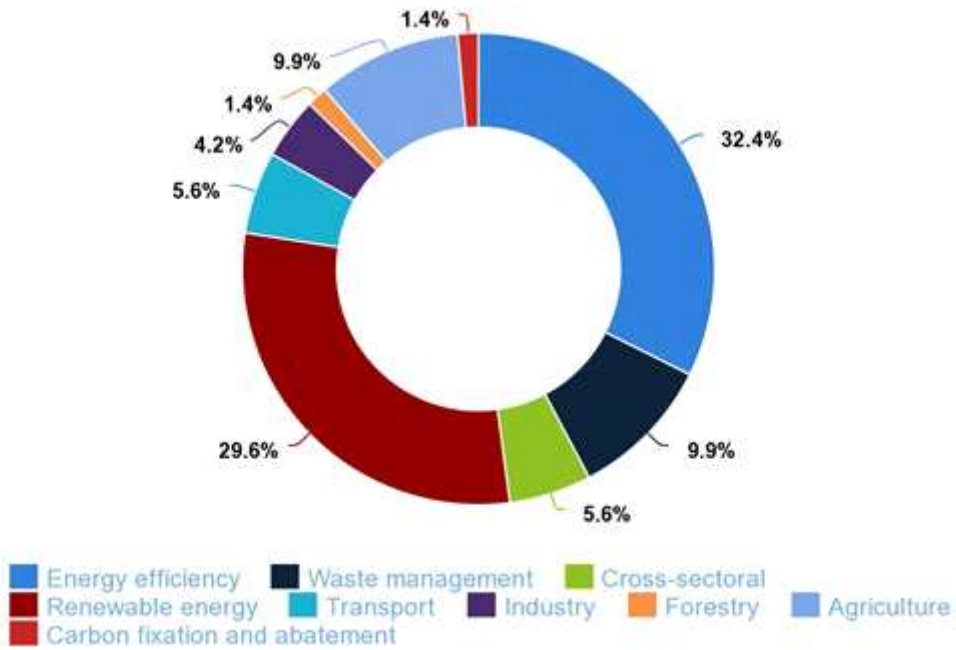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과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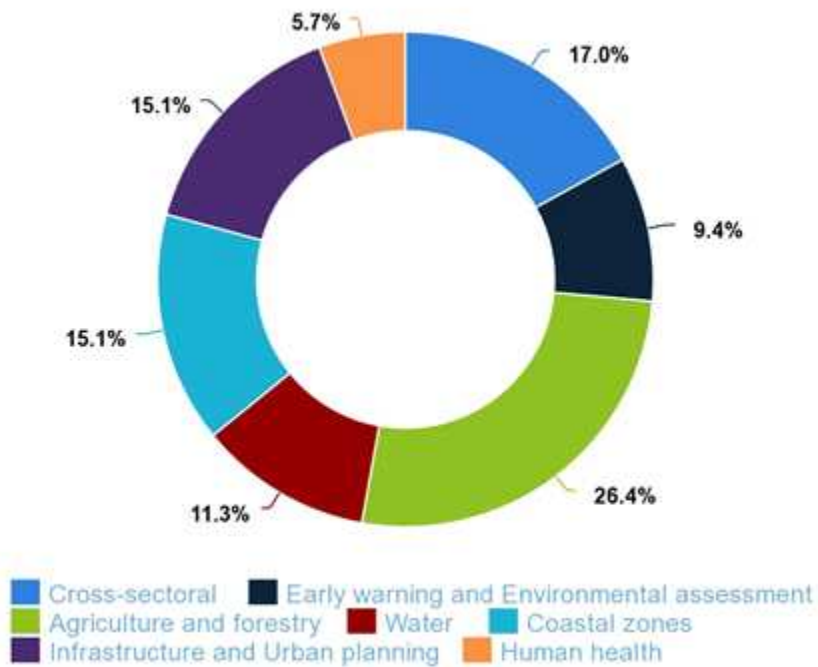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49	한국농어촌공사(KRC)	N0431
50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	N0434
51	한국발명진흥협회(KIPA)	N0436
52	산림조합중앙회	N0448
53	(주)에이엘지시스템즈	N0449
54	(사)더브릿지	N0452
55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HU)	N0457
56	ASEIC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N0458
57	(주)유신	N0463
58	한국지역난방공사(KDHC)	N0465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2018.11.14. 현재)

- 제출된 TA : 222개
- Active TA : 124개 (감축관련 TA-52.1%, 적응관련 TA-31.0%)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